

2021년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집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 곧 그분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부활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살 수 있으며,
이 공급에 의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다.

2021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메시지 1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성경: 딤편 1:3-5, 요 4:14하, 마 1:18, 20-21, 23, 3:16-17, 6:9-10, 13, 12:28, 28:19

- I. 우리는 성경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신성한 삼일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며, 이 몸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딤편 1:3-5, 엡 3:14-21, 4:16, 계 21:2, 10-11.
- A. 신성한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며,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 그들은 교회를 산출하도록 변화를 받는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이자,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이 모든 것의 최종 집대성은 새 예루살렘이다 — 딤편 1:3-4, 요 1:14, 29, 행 2:24, 고전 12:12-13, 15:45하, 딤편 3:15, 계 5:10, 21:2.
- B. 신약에서 하나님에 관해 언급된 모든 것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와 관련된다. 신성한 경륜의 성취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에 의해 이루어진다 — 롬 8:3, 11, 엡 1:3-23, 고후 13:14, 엡 3:14-21.
- C. 성경 전체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일해 넣으셔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심으로써 그들의 온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즉 원천이신 아버지과 기름진 것이신 아들과 강이신 그 영으로 적시고자 하신다는 통제하는 이상에 따라 기록되었다 — 시 36:8-9.
- D.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을 마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이다 — 요 1:14, 4:14, 7:37-39, 고전 12:13, 15:45하, 고후 13:14.
- E.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요 4:14하). 근원이신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표현이신 아들은 샘이시며, 전달이신 그 영은 흐름이시다. '-에 이른다(into)'라는 말은 또한 '-이 되다'라는 의미이며, 영원한 생명의 총체는 새 예루살렘이다. 따라서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 안에 흐르시고 우리로부터 흘러 나가시는 것의 결과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요 7:37-39, 시 46:4, 계 22:1-2, 7:17, 21:6, 22:17).
- II.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에 대한 통제하는 이상에 근거하여,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삼일성을 볼 수 있다.

- A. 마태복음 1장에서 성령(18, 20절)과 그리스도(아들, 18절)와 하나님(아버지, 23절)은 사람 예수님을 산출하시기 위해(21절) 함께 계시는데, 이 사람 예수님은 여호와 구원자이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1.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은 성령에 의한 신성한 잉태와 예수님(아들)의 출생을 계시한다. 그런 다음 23절은 이분이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 불리셨다고 말한다.
 2.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에 의한 잉태와 아들 예수님의 출생의 결과였다 — 비교 눅 1:35.
- B. 마태복음 3장에서 아들은 열린 하늘 아래 침례의 물속에서 계셨고, 그 영은 비둘기같이 아들 위에 내려오셨으며, 아버지는 하늘에서부터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 16-17절.
1. 주 예수님은 그 영으로 나심으로(눅 1:35), 그분의 출생을 위해 본질적으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셨다. 그런 다음 그분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 위에 경륜적으로 내려오셔서, 새 왕이신 그분께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을 그분의 백성에게 소개하셨다 — 사 61:1, 42:1, 시 45:7.
 2.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 안에 놓여지심으로 그분께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 세 가지는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내려오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도록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 마 3:16-17.
 3.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으로,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온순함과 단일함으로 사역하셨다. 그 영께서 내려오신 것은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신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증거였다.
- C.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순서로) 삼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9-10절) 또한 (여기서는 아들과 영과 아버지의 순서로) 삼일 하나님으로 끝마친다(13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늘들에서 우세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우세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1.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믿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격의 삼일성을 함축하는 세 가지 간구를 표현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는 주로 아버지와 관련되고, ‘왕국이 오게 하시며’는 주로 아들과 관련되며, ‘뜻이 ...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는 주로 그 영과 관련된다.
 - a.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우리는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 뵤전 1:15-17, 뵤후 1:4, 비교 사 11:2.
 - b. 하나님의 왕국이 오도록, 우리는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의 생활을 해야 한다 — 롬 14:17.
 - c. 신성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곧 천국을 이 땅에 이끌어 오는 것이다 — 비교 마 8:9상.
 - d.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오는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날 것이고(시 8:1),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며(계 11:15),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2. 주님의 기도의 본은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마 6:13.

- a. 왕국은 아들에게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이다. 능력은 그 영
 께 속한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한다.
 - b. 이처럼, 주님께서 그분의 최고의 가르침에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마친다.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므로, 모
 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으시다 — 고전 15:28.
- D. 마태복음 12장에서 아들은 사람의 신분으로 그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다 — 28절.
- 1. 그분께서 다른 한 분에 의하여, 다른 한 분을 위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분께서 개인주의
 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고 사심 없이 행동하신 것을 보여 주었다.
 - 2.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신 아들은 전혀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을 향해서 존재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었다.
 - 3. 아들은 그 무엇도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과
 사심 없음을 본다. 이것은 또한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조화와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4.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신성한 동역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은 우리가 따라야 할 탁
 월하고도 아름다운 본보기이다. 이것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께서 세우신 좋은 본이다.
 - a.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합당한 동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충분히 건
 축되지 않았다.
 - b.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몇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수혜자가 되도록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 곧 권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 E.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고전 15:45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거쳐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부활의 분위기와 실재 안에서 제자들에
 게 돌아오시어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인격, 실재 안으로 민족들을 침례 주어 그들을 왕국 백성이 되
 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 마 28:19.
- 1.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신 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주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잠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행 8:16, 19:5, 갈
 3:27, 롬 6:3-4, 고전 12:13.
 - 2.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유기적이고 영적이며 비밀
 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 3.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은 단수이다.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
 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 III. 우리는 실재의 영계서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
 한 분배의 모든 실재 안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
 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이들이 되어, 그분을 우리 생활의 실질과 요소 자체가 되시게
 해야 한다 — 요 16:13, 15:4-5.

메시지 2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삶

(1)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

성경: 요 15:1, 4-5, 요일 2:6, 20, 24, 27, 3:22-24

- I.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의 실질적인 체험을 보아야 한다 — 요 14:20, 26, 15:26, 고후 13:14, 엡 2:18, 3:16-17.
- A. 요한복음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책이다 — 요 15:1, 4-5.
 - B.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에 관한 진리는 서신서들에서,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된다.
 - C.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의 모든 실질적인 측면들과 세부 항목들을 볼 수 있다.
 - D.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의 체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한다.
- II.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 5절.
- A.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 요 15:4-5.
 - B.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이다 — 마 28:19, 고전 1:30.
 - C.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이다 — 요 15:4-5, 롬 8:11, 고후 13:14.
 - D.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산다 — 요 15:4-5, 7.
- III.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산다 — 요 15:1, 5.
- A. 참포도나무와 함께 그 가지들, 곧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안의 믿는 이들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는 신성한 경륜 안에서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며 그분의 생명을 표현한다 — 딤후 1:4, 엡 3:9, 요 15:1, 5.
 - 1. 아들의 표징인 참포도나무의 기능은 삼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유기체를 얻으심으로써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번식되시고 확산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요 15:8, 16.
 - 2. 농부로서 아버지는 근원과 창시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중심과 체현과 나타남이시며, 영 하나님은 실재와 실재화이시고, 가지들은 단체적인 표현인 몸이다 — 요 15:1, 4-5, 26.
 - a. 아버지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다음, 실재이신 그 영 안에서 실재화되신다 — 요 16:13-15.
 - b. 그 영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가지들인 우리 안으로 일해 떨어져,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증언된다.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시고 나타나시며 영광스럽게 되신다 — 엡 3:16-21.
 - B.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 요 15:4-5.

1.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가지를 받아 내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가지들이 되었다 — 요 3:15.
 2.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연결의 문제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통의 문제이다 — 고전 1:9, 30.
 3.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분명한 이상을 보는 것에 달려 있다. 일단 자신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요 15:2.
 4.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 요일 2:24, 27-28, 4:13.
 - a.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다 — 고전 6:17.
 - b.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이다 — 요 15:4상, 5상.
- C. 우리는 주님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 요일 2:6, 24, 3:22-24.
1.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 요일 2:6.
 - a. 주님은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 계 1:5.
 - b. 우리는 우주의 주님이신 분 안에서 살고 있다 — 엡 1:20-23.
 2.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들의 자격과 관련된다 — 마 3:17, 17:5.
 - a.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함께 아버지의 본성을 소유하여 아버지를 표현하시는 분이시다 — 요 5:26.
 - b. 아들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누리며,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릴 권리를 누린다 — 엡 1:14.
 3. 우리는 또한 모든 방면과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 요일 2:24.
 - a. 우리는 아들 안에 거할 때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 요일 2:23-24.
 - b.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살 때 아들들로서 사는 것이다 — 히 2:10.
 4.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요일 3:24.
 - a.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이다 — 요일 3:23.
 - b.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주님과 그리스도께 연결해 주는 것은 그 영이다 — 요일 3:22-24.
- D. 우리는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의해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한다 — 요일 2:27.
1. 기름바름은 내주하시는 복합되신 영,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 요일 2:20, 고전 15:45, 고후 3:6.
 2. 우리는 주님의 피의 씻음을 체험하고 기름 바르시는 영을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교통 안에 거한다 — 요 15:4-5, 요일 1:5, 7, 2:20, 27.
 3.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시자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을 내적인 기름바름으로 누린다 — 고후 1:21-22.
 4. 기름바름은 우리 안에 계신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바른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기름바름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생명의 내적 감각, 곧 내적 의식에 의해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달해 준다 — 시 133편, 고전 2:16, 롬 8:6, 27.
 5. 그 영의 기름바름의 가르침은 생명의 내적 감각이다 — 행 16:6-7, 고후 2:13.
 6.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로 처리받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몸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의 기름바름을 가지며 몸의 교통을 누릴 것이다 — 엡 4:3-6, 15-16.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삶

(2)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또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삶

성경: 요 20:22, 6:57, 63, 사 12:3-6, 빌 1:19-21상, 갈 6:17-18, 계 22:21

I.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

- A. 주님은 부활하신 날에 그분 자신을 성령(거룩한 숨)으로 그분의 제자들 안에 불어 넣으셨다(요 20:22).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숨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부유한 분이 되실 수 있다(애 3:55-56, 창 4:26, 롬 10:12-13, 영한 동변 찬송가 255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10장)).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쉬신 숨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칠 수 있다(딤후 3:16).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의 영의 체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신 그 영을 얻는다(요 6:57, 63).
- B.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들의 누림이 되시는 것이며, 그 목표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확장인 교회 곧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 램 2:13, 애 3:22-24, 고전 1:9.
 - 1. 우리가 부활 안에서 한 영을 마실 때,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 되고 몸으로 건축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다 — 고전 12:13, 계 22:17, 요 4:14하.
 - 2. 우리는 주님께 말하고 노래함으로써, 주님에 의해,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길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 시 46:4, 사 12:3-6.
 - 3.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기를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음료이신 주님을 누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 민 20:8, 빌 4:6-7, 12.
- C.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요 6:57).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한 읊조림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램 15:16, 시 119:15-16, 수 1:8-9). 단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활력을 주는 요소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에게 공급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 — 빌 1:19-21상.

- A.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 — 빌 1:19, 고전 15:45하, 고후 3:6.

1. 이 넘치는 공급에는 신성, 인성,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 승천, 신성한 속성들, 인간 미덕들이 포함된다.
 2.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빌 1:19.
 3.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빌 1:20-21상.
- B. 바울의 모든 생활과 일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거나,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 또는 다른 공로나 장점들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와 그가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 빌 1:20, 3:3-10, 고후 4:5.
- C. 사도의 몸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었다. 즉, 그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으며, 그분께서 높아지시고 또 높이 찬양을 받으셨다 — 빌 1:20.
1.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를 사도에게 준 것이었다 — 행 9:16, 고후 6:4, 11:23, 골 1:24.
 2.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누림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 빌 1:18, 4:23.
 3.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를 확대하여,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나타나시도록 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다 — 빌 1:4, 18, 25, 2:2, 17-18, 28-29, 3:1, 4:1, 4.
 4. 바울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신 것에 대한 선포이자 그리스도께서 다함이 없으신 것에 대한 선포였다 — 엡 3:8, 18, 비교 사 9:6.
- D.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실패와 그리스도를 확대하지 못한 패배에서 구원받는다 — 롬 5:10.
- E. 믿는 이들의 본인 바울은 그리스도의 뛰어난 안에 있는 삶을 살았다. 곧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들을 지닌, 완전히 위엄 있는 삶,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닮은 삶을 살았다 — 딤후 1:16, 행 27:21-26, 28:3-6, 8-10.

III.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 — 갈 6:18.

- A.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수 있다 — 히 10:29하, 요 1:16, 갈 3:2-5, 고후 1:12, 12:9.
1.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 a.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 머리의 권위와 왕권과 지배 권위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보좌에 앉으시게 해야 한다 — 히 4:16, 롬 5:17, 21, 골 1:18하, 계 2:4.
 - b. 하나님의 보좌는 흐르는 은혜의 근원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지 못하고 그분을 보좌에서 끌어내릴 때, 은혜의 흐름은 중단된다 — 계 22:1.
 - c.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한다면,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우리에게 공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것이다 — 계 22:1, 영한 동변 찬송가 770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57장).

2. 우리는 예수님의 낙인을 지닐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 — 갈 6:17-18.
- a. 영적으로 예수님의 낙인은 바울이 살았던 생활의 특징들,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은 생활의 특징들을 상징한다. 그러한 생활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며(요 12:24),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6:38),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7:18),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빌 2:8).
 - b. 우리가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의 공급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할 것이다 — 빌 3:10, 고후 4:10-11, 엡 3:2.
- B. 신약 시대 전체에 걸쳐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주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대와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결하고 연합하며 합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된다 — 계 22:21, 엡 2:10.

메시지 4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함

성경: 마 1:21-23, 18:20, 28:20, 딤후 4:22, 요 14:17

- I.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집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 곧 그분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다 — 요 15:4.
- A. 거하시는 영, 곧 내주하시는 영께서 우리와 삼일 하나님의 상호 거함, 상호 내주함의 요소와 영역이시다 — 요일 4:13, 16하.
- B. 우리에게는 신약의 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조감도가 필요하다. 신약의 사분의 일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과 관련되며, 신약의 사분의 삼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관련된다.
- II.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마 1:23.
- A.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인 우리 안으로, 곧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으로 분배하심으로(롬 8:2, 6, 10-11)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8:14-15, 19, 23, 29, 17)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12:4-5) 결국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이다(계 22:1-2).
- B.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곧 육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 마 1:21-23.
- C. 예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1. 그분은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마 18:20.
 2.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마 28:20.
 3.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딤후 4:22.
 - a. 오늘날 우리의 영은 임마누엘의 땅이다 — 사 8:7-8.
 - b.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수는 임마누엘의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 — 사 8:10, 비교 요일 5:4, 요 3:6.
- D. 실지적인 임마누엘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실재의 영이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즉 날마다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함께 있다 — 요 1:14, 14:16-20, 고전 15:45하, 딤후 4:22.
1.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모임 때 삼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 마 18:20, 28:20, 시 119:130, 행 6:4.
 2.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을 통해 은혜와 평안을 누린다 — 갈 6:18, 행 9:31.
 3. 그 영께서 인도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 곧 그분의 임재이다 — 롬 8:14, 16.
 4.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 곧 그 영을 통해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린다 — 고후 13:14.

E.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임재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다 — 갈 5:25.

1.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가 여전히 살지만 우리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히 내적인 것이다 — 갈 2:20.
2.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관으로서 그분과 한 인격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산다. 우리의 승리는 임마누엘, 곧 예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
3.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 고후 2:10, 4:6-7, 갈 5:25, 창 5:22-24, 히 11:5-6.

F. 우리가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은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출 33:14)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지도’이다.

1.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이라는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2021년 여름 훈련 개요) — 마 1:23, 딤후 4:22, 갈 6:18, 시 27:4, 8, 51:11, 고후 2:10.
2. 주님의 임재, 곧 주님의 미소가 통제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제삼자를 통해 얻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직접적인 주님의 임재에 의해서 지켜지고, 다스림 받고, 통제받고, 안내받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2021년 여름 훈련 개요)
3. “젊었을 때 나는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영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육십팔 년 남짓의 체험을 통해 나는 주님의 임재 외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곧 모든 것이다.” — 여호수아 라이프 스타디, 8장, 61-62쪽.(2021년 여름 훈련 개요)

G. 신약 전체가 임마누엘이고,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일부이다. 신약은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사람으로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인 위대한 하나님-사람 곧 새 예루살렘으로 끝마친다 — 마 1:23, 고전 6:17, 행 9:4, 딤후 3:15-16, 계 21:3, 22, 겔 48:35.

III.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 갈 2:20하, 빌 1:19-21상.

- A.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11:25), 부활은 한 인격이다. 실재의 영이신 생명 주시는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재이시자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재이시다(고전 15:45하, 요 14:17, 16:13, 요일 5:6, 빌 3:10, 출 30:22-25).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에 의해,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있다. 외적인 환경은 내적인 그 영과 협력하여,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인다 — 롬 8:9-10, 13하, 28-29, 고후 4:7-18.

1.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된 환경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 엡 4:1, 6:20, 고후 1:8-9, 12.
 2.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재이신 그 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대화할 필요가 있다. 시편 18편의 제목은 이 시편이 다윗과 신성하신 하나님의 인간적인 대화였음을 가리키며,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십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나면, 우리는 불붙을 것이며 부활의 실재이신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 C. 예수님의 인성은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인간 생명이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매혹하시고 소중히 보살피신 것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인성 안에서 하신 것이다. 주님은 그분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근원, 곧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부활 안에서 인간 생활을 하셨다 — 요 5:19, 30, 14:24.
1.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 생활은 비밀스럽게 되었다. 곧 비밀이 되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 생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한다 — 롬 13:14, 갈 2:20, 빌 1:19-21.
 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는 것이었다(요 5:19, 30).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 사람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개혁되었다(빌 3:10, 1:21상).
 3. 우리는 모두 주님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생명에 의해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어야 한다. ‘부활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천연적인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 D. 썩 난 막대기는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과, 이 생명이 썩트고 썩피고 열매를 맺어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 민 17:8.
1.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반역한 후에, 하나님은 열두 명의 인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회막 안의 증거판 앞에 두라고 명하셨다(민 17:4). 그런 후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썩이 날 것이니”(5절)라고 말씀하셨다.
 2. 열두 개의 막대기는 모두 잎이 없고 뿌리가 없고 마르고 죽어 있었다. 그중 어느 것이든 썩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이며, 봉사의 근거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는 무관한 것임을 본다. 따라서 썩 난 막대기는 우리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권위가 있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3. 모든 봉사의 원칙은 썩 난 막대기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열한 개의 막대기는 인도자들에게 돌려 주셨지만, 아론의 막대기는 영원한 기념으로 궤 안에 두셨다. 이것은 부활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민 17:9-10.
 4. 아론의 막대기에서 썩이 난 후에, 그는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그의 체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고후 12:7-9, 롬 9:15-16, 21, 23, 눅 1:78-79.

5.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것이다(고후 3:5, 마 26:33, 요 21:15, 비교 막 11:9). 겸손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고후 12:7-9, 약 4:6, 비교 롬 12:3, 갈 5:26, 마 18:3-4, 20:20-28, 고후 4:5).
6. 부활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것,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이다. 부활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자신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 — 고후 1:8-9, 4:7.
7.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후 1:12, 빌 3:10-11.
8.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천연적인 영역에 속하고,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다.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 사람 자신이 끝나야 한다 — 마 19:26, 막 10:27, 눅 18:27.
9.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이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임을 보아야 한다.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나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 곧 우리 안에 사시는 분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에 대처하시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 빌 4:5-7, 12, 1:21상.

메시지 5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2)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경: 빌 2:13, 1:19-21상, 행 16:7, 롬 8:9

I. “하나님은 ...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 빌 2:13상.

- A. 하나님은 이 땅에서 움직임을 갖고 계시며, 운행하심으로써 움직이신다 — 고전 12:6, 11, 고후 1:6, 4:12, 엡 1:19, 3:7, 20, 4:16, 빌 3:21, 골 1:29, 2:12, 살전 2:13.
- B.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 빌립보서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총괄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 1.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한 심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위해 있다 — 빌 2:5-11, 3:8-10.
 - 2. 우리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빌 2:13.
 - 3.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곧 영적인 인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과 관련됨을 볼 수 있다 — 빌 1:19, 2:5-11, 3:10, 12, 21, 4:5-7, 19, 23.
- C. 빌립보서에서 다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움직임 아래 있다.
 - 1. 1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과 표현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20-21절.
 - 2.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밝혀야 함을 보여 준다 — 5-11, 16절.
 - 3. 3장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얻어야 함을 보여 준다 — 14절.
 - 4. 4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결이심을 보여 준다 — 12-13절.
- D.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 빌 2:13하.
 - 1.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 마 28:19, 고후 13:14.
 - 2. 뜻을 세우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 빌 2:13.
 - a. 뜻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에서 시작되어,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확산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 롬 8:4, 6.
 - b. ‘행하도록’ 혹은 ‘행동하도록’에 대한 헬라어는 이 절에 있는 ‘운행하시어’에 대한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이다.
 - 3.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자신의 선한 기쁨’ 곧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은 우리가 그분의 가장 높은 구원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 엡 1:5, 빌 1:19, 2:12.
- E.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기적적인 정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일이지만 또한 전적으로 기적적인 일이다 — 빌 2:13, 4:6-7.
 - 1. 하나님은 기적적이지만 정상적이고도 조용하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 빌 4:7.
 - 2.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엄청난 일이다 — 엡 1:19, 3:17.

II.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과 함께한다 — 빌 1:19.

- A.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 행 16:7, 눅 1:31, 35, 마 1:21.
1.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 요소와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 — 빌 2:5-8.
 2. 예수님의 영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인성을 가지신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인생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 — 빌 2:15.
 3.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는 고난의 요소가 있고 박해에 저항하며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 골 1:24, 행 9:15-16, 16:7.
- B.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킨다 — 롬 8:9.
1. 하나님의 영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 — 롬 8:9.
 2. 그리스도의 영은 사실상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죽음을 처리하시려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분 자신을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 — 롬 8:2, 9.
 3.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의 능력에 동참하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권위를 얻으신 그분과 동일시될 수 있다 — 빌 3:10, 엡 1:20-21, 2:6, 요 11:25, 행 2:22-24, 31-36.
- C.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킨다 — 빌 1:19.
1. 예수님의 영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영은 특별히 그분의 부활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 둘 다와 관련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영이시자 이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 행 16:7, 롬 8:9, 빌 1:19.
 2.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이 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신성한 요소와 인간 요소를 모두 갖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본질과 실재를 갖고 계신다.
- D. ‘넘치는 공급’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도록 풍성한 공급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독특하고 의미가 풍부한 단어이다 — 빌 1:19.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신성 곧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포함한 신성한 인격, 높아진 인성 곧 합당한 생명과 생활과 본성과 인격을 가진 인성,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놀라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요 1:1, 14, 29, 갈 2:20, 눅 24:5-6, 50-51.
 2.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할 수 있다 — 빌 1:19-21상.
 - a.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이러한 넘치는 공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살 때, 그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확대될 수 있다 — 빌 1:20-21, 4:11-13.
 - b.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모든 것을 포함한 넘치는 공급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대처하도록 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 — 빌 1:19-21상, 4:11.

메시지 6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3)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

성경: 마 28:19, 고후 13:14, 계 1:4-5, 4:5, 5:6

I. 신약에서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다. 이 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 말한다.

- A.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영, 이렇게 세 위격이 계신다 — 마 28:19.
- B. 한 면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말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 절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 있다.
 - 1.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 2. 이 한 이름은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안의 셋이심을 계시한다.
 - 3.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고 삼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이끌어, 이 신성한 인격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하는 것이다 — 마 28:19.
- C.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깊은 문제이다 — 고전 12:13, 갈 3:27.
 - 1.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안으로’는 로마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와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
 - 2.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한 연결 안에 놓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 존재를 우리 존재 안으로 취하는 것이다 — 마 28:19.
- D.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명령은, 주 예수님께서 삼일 하나님이 거치신 과정의 완결인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내리신 것이었다.
 - 1. 삼일 하나님은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셨는데, 이 과정은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포함하는 육체 되심으로 시작하여 부활로 완결되었다 — 요 1:14, 롬 6:4.
 - 2. 믿는 이들이 신성한 삼일성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고전 15:45, 고후 3:17.
 - 3. 삼일성의 인격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신 영 안에 침례 받는 것이다 — 마 28:19.
 - a. 이것은 아버지의 풍성과 아들의 풍성과 그 영의 풍성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 엡 3:8.
 - b. 침례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이제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아들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 영께서 받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 고전 6:17, 요 15:4-5, 7.

II.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 고후 13:14.

- A.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세 방면에서의 세 위격, 곧 아버지 하나님(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은혜)와 성령(교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B.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 고후 13:14, 마 28:19.
- C.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부합한다.
1.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다 — 요 1:17, 고전 15:10.
 2.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 요일 4:9.
 3.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 고후 13:14.
 4.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표현되고,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영 하나님의 교통 안에 있다 — 요 3:16, 1:17, 16.
 - a. 바로 성령의 교통을 통해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 — 고후 13:14.
 - b.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며, 이 은혜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 고후 13:14.
 - c.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 — 요 1:14, 16, 요일 4:9-10.
- D. 신성한 삼일성에는 근원과 과정과 흐름이 있다 — 고후 13:14.
1. 근원 곧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 요 3:16, 4:14.
 2. 과정 곧 흘러나옴은 그리스도에 의해 표현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이다 — 고전 16:23.
 3. 흐름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통과 전달과 순환이신 성령이다 — 고후 13:14.

III.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다 — 계 1:4-5.

- A.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1.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다.
 - a.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는 “나는 ‘나는 -이다’이다.”라는 의미이다 — 출 3:14, 6.
 - b. 그분께서 ‘나는 -이다’이신 것은 그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뜻한다.
 2.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 곧 유일하게 존재의 실재를 가지신 분이시다.
 3.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 a.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다’이시며,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한다.

- b.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존재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 출 3:14.
- c.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 요 8:58, 전 1:2.
- d.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분은 반드시 모든 것에서 홀로 유일하신 분이 되셔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 히 11:5, 창 5:22-24.

B.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에 대해 말한다.

- 1.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을 뜻하는 일곱 영(1:4, 4:5, 5:6)으로 불리신다.
- 2.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일곱 영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한 영이시다(엡 4:4). 왜냐하면 일곱 영께서 삼일 하나님 가운데 함께 나란히 계시기 때문이다.
- 3. 일곱은 하나님의 운행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수이므로, 일곱 영은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분이심이 분명하다 — 계 4:5.
 - a. 하나님의 영은 그 본질과 존재에서는 하나이다.
 - b.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실 때에 그 강화된 기능과 일에서 일곱 배가 되신다 — 계 1:4.
- 4. ‘일곱 영’이라는 칭호는 그 영께서 일곱 배로 강화되셨음을 가리킨다. 이 영은 그 영의 모든 요소들, 곧 신성과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실재와 은혜 등을 강화하신다 — 계 3:1.
- 5.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린양의 일곱 눈이시다.
 - a. 구속하는 어린양으로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감찰하고 살피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에 집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4:5, 21:2, 9-10.
 - b. 어린양의 일곱 눈이신 일곱 영은 또한 주입하기 위해 계신다.
 - c.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곱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일곱 영인 이 일곱 눈은 그리스도의 요소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여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 계 5:6.

C.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 1. 하나님의 살아 있고 신실한 증인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과 행위로뿐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증거이다 — 계 1:5상.
- 2.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가리킨다. 그분은 살아 계신 분, 곧 죽으신 적이 있지만 이제 영원토록 살아 계시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 계 1:5하, 18.
- 3. 승천 안에서 주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 계 1:5하.
 - a.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어 모든 왕들 위에 계신다 — 계 5:6.
 - b. 보좌에 앉은 분이신 주 예수님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이 땅, 곧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 계 1:5하.